

# 명인 그리고 명곡을 만나다



▶ 전주시립국악단 12일 정기연주회

전주시립국악단은 1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제214회 정기연주회 '명인명곡시리즈'를 연다. 이번 공연에선 김일규·김일륜 명인의 명연주를 비롯해 최경래 시립국악단 수석 단원의 소리, 그리고 김희조·김대성 작곡가의 관현악명곡을 만날 수 있다. 총 다섯 무대로 꾸며지는 이 공연의 첫 곡은 김희조 작곡 관현악 3번이다. 김희조의 1987년 작품인 이 곡은 전체적으로 웃다리 풍물의 길군악 7체에 기반을 두고 악곡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곡은 김희조 편곡의 심청가 중 범피중류로, 최경래 단원의 소리로 들려 준다. 범피중류 대목은 '배가 바다 한가운

## 김희조·김대성 작곡가 관현악 명곡 들려줘

데로 떠간다'는 뜻으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상인들에게 팔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의 심경을 그린다. 주변의 풍경과 죽어 가는 애달픈 심정을 토로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가야금 명인 김일륜은 가야송을 선보인다. 이 곡은 가야금 연주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병창형식의 협연곡으로, 김일륜 명인의 가야금연주와 노래 그리고 관현악의 어울림이 돋보인다. /정해은 기자

연주회에선 김일규류 아쟁산조 협주곡도 들을 수 있다. 김일규류 아쟁산조는 소리적 요소가 강하고 예술적이며, 남성적 매력이 넘치는 선법과 표현력을 고루 갖추 곡이다. 또한 변화무쌍한 음색의 조화와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선율로 짜여졌다. 이날 무대에서 곡을 만든 김일규 명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은 김대성 작곡의 관현악 열반이다. 곡은 작곡가가 범패(불교음악)와 서도민요를 연구하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간내면 속에서 오래 전부터 흘러왔던 종교적인 갈등과 인간적 번뇌, 해탈에 대한 열반 등이 곡에 표현됐다. /정해은 기자



## 세대 간 소통으로 경험·지혜 나눔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운영사업 멘티기관 모집 '인문학 멘토링 프로그램' 선정되면 '인문학의 장' 이달 말부터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8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운영사업에 함께 할 멘티기관을 모집한다. '2018 인문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된 멘티기관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문학의 장'으로 4월 말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멘티기관 신청자격은 어른들의 건강한 경험과 삶의 가치를 나누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전북·전남·광주 소재의 군부대, 보호관찰소,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이 해당된다. 인문·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은 멘티기관이 희망하는 분야의 멘토를 기관에

파견해 운영되며,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은퇴자들이 멘토와 튜터가 되어 지역 아동·청소년을 찾아가 인문의 가치와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인문학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9일부터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ife\_honam@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 수강생 모집

오늘부터 30일까지... 제작과정 무료

2018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이 단편영화의 교육과 제작을 함께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편의 단편영화 제작을 목표로 진행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은 영화 제작의 기초단계부터 마스터와 전문영화인과 함께 심화단계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다. 올해 마스터는 2016전북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과 2016카이로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수상한 '두만강 저 너머'의 배세웅 감독이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2~30일까지며, 전 제작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부문은 연출과 스태프 총 2개 분야다. 연출부문은 영화제작 참여 경험이나 1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한 이에 한하며, 스태프부문은 영화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www.jifa.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ifa\_indie@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로 제작되어진 영화들은 국내의 영화제들에 초청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8기 작품인 '목욕탕 가는 길'(연출 이상혁)이 전주국제영화제의



'목욕탕 가는 길' 촬영 현장.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색선에 초청돼 상영된다. 또한 '연희동'의 최진영 감독과 '흰집'의 정영 감독도 제작스쿨을 통해 배출된 지역영 화인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곁에 두고 싶은 사랑'

강수호 캘리그래피 작품집 발간

"캘리그래피는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글씨로 표현하는 창작예술이며 '글씨에 담아낼 감성은 단어·어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강수호 작가. 그가 캘리그래피를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랑'을 최근 발간했다. 작품집은 이형구의 시집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돋보인다. 시집 '곁에 두고 싶은 사랑'(2008년 출판)의 제목은 강수호 작가의 글씨다. 이를 인연으로 강 작가는 그의 시를 애독해왔다고 한다. 책에는 이 시인의 시집에서 발췌한 시구들이 단문 형식으로 실려 있다. 강 작가는 다양한 인간의 감성과 표정을 글씨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서



체나 글꼴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는 "요즘 들어 서체가 일괄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서예술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자 했다"고 출간배경을 설명했다. 책에선 아름다운 시구에 곁들여진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변주를 만나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